박헌수 익산경찰서장 취임 100일

시민 맞춤형 치안 실천 '총력'

취임 직후 찾아가는 치안간담회 추진
교통안전 홍보 · 범죄예방교육 실시

익산 출신 박헌수 익산경찰서장(총경)이 오는 23일 서장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시민이 신뢰하는 믿음직한 익산 경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을 펼쳐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박 서장은 취임 직후 19개 지구대 파출소 및 18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안간담회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통안전 홍보 및 보이스 피싱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맞춤형 주민 공감 치안을 실천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백제초교, 마한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운영 체계를 변경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상습 정체구역 익산역 지하차도 사거리 1차선을 직?좌회전으로 변경,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 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교통 단속, 신호 및 시설 등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시민교통제언방'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익산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형사 전반에 걸친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수사과에 자문변호사를 지정, 수사민원 사건에 대하여 사전 상담 후 처리 절차 등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 피해 회복 안내 등으로 시민 중심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익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경찰서장이 솔선하여 원광고 등 4개 학교 1,200여명의 학생·교직원 들을 대상으로 언어·사이버 폭력·성범죄 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연예인 단톡방 불법촬영물 유포 및 모텔방 불법촬영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익산시를 비롯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지부와 함께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점검하고 불법촬영 경고스티커를 제작하여 관공서 등에 배부하는 등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회복적 경찰활동에 맞춘 치안 정책 또한 공감을 얻고 있다.

박헌수 서장은 직원들의 행복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광대 병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며, 음주운전 예방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내부 만족도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박헌수 서장은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맞춤형 공감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조현병 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소한 112 신고 사건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고 상습 폭력자 색출, 이웃 주민과 친인척 대상 동향 파악, 정신과적 치료 여부 탐문 등 심층 분석하여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믿음직한 익산 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경찰 여성청소년과,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자을 안내서 제공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권리 및 지원을 안내해주는 다국어 권리·지원 안내서를 제공 하고 있다.

안내서는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지원 기관 연락처 등을 주요 내용으로 4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로 제작 문화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정폭력에 노출 된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교부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과 박상준 경위는 "다문화 가정 내 가정폭력 사례 확인 시 피해여성에게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가정폭력 특례법상의 보호사건 처리 등 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헌수 익산서장은 "인권사각 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강조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남원소방서, 방화우려지역 예방순찰 추진

남원소방서는, 방화(放火)에 의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월 말까지 방화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등 방화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5년(2014~2018년) 봄철 화재 중 '방화' 화재발생건수 45건(1.6%)이지만 사망자 비율이 6명(2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화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공공 위해 행위로, 이에 따라 남원소방서에서는 봄철 방화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화 의심지역 순찰 등 방화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화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으로는 ▲공사장 공사재료나 폐자재 등 가연물 정리정돈 ▲집 주변 불법투기 쓰레기 등 가연물 무단 방치 정리 ▲의심스러운 통행인 발견시 동향 주시 ▲방화 목격 시 주변에 알리고 119 또는 112에 신고 등이 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방화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만큼, 지자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예방은 물론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정천면노인회, 월평리 유원지 하천정화활동

진안군 정천면노인회(회장 고흥석)는 최근 각 마을별 노인회장과 총무 20여명이 함께 월평리 유원지 하천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번 하천정화활동은 월평리 유원지를 찾는 손님들에게 겨우내 쌓인 묵은 먼지를 제거해 깨끗한 정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고흥석 회장은 "환경정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정천면 만들기에 회원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폭력이 다수였던 반면 요즘에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는 온라인상에서 욕설, 험담,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무주경찰은 지난 15일 무주중앙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소개와 함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경찰서 2층 초롱마루 회의실(舊소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는 부서별 단편적 판단에 의해 경찰조치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다 보면 현장조치 미흡사례나 정책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각 기능간 연결·조정·협업(3C) 활성화로 종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기능별 역할을 고민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직 내부 공유·협업·분석했으며, 남원시청과 협조해 남원여고 주변의 성폭력예방 여성 안심귀가길을 마련하는 한편 CCTV를 설치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진태규 수사과장은 "주민들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기능은 협업을 통해 맡은바 치안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긴급 간담회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최근 농협 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막기 위해 진안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영업점과 경찰서 간 신속한 신고 및 검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연재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우선 인만큼 전화로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 이기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안 지역은 고령의 노인분이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하다면서, 금융기관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ATM기 앞에서 이체·반복출금·고액의 돈을 찾을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경찰, 청소년수련원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 점검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지난 19일 임실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여부 점검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

이날 활동은 봄 행락철를 맞아 수학여행단과 나들이 여행 등 관광버스 운행증가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운전 주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 대열운행 금지 등을 당부했다. 또한 관할 관광버스 사무실을 방문해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박주현 서장은 '관광버스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우려와 인명피해가 큰 만큼 행락철 관광버스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진충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